

하나님의 말씀

사후 세계의 혼 2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 | |
|---|----|
| 2776 생명의 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 3 |
| 6616 죽음에 대한 두려움..... | 5 |
| 6637 죽음에 대한 두려움..... | 6 |
| 6625 죽음 후의 때를 기억하라..... | 7 |
| 2348 죽음의 순간..... | 8 |
| 4033 죽음의 순간. 고난에 대한 설명..... | 9 |
| 7343 죽음 후에도 혼은 계속 산다..... | 10 |
| 2912 죽음을 염두에 두라..... | 11 |
| 6817 혼의 거처를 바꾸는 일. 육체의 죽음..... | 12 |
| 6541 혼의 수면. 잘못 된 가르침..... | 13 |
| 7538 긴 수명과 짧은 수명..... | 14 |
| 8772 어린 아이들의 죽음..... | 16 |
| 3260 조기 사망. 하나님의 긍휼. 높은 나이..... | 18 |
| 3258 이 땅을 일찍 떠나는 일. 목적..... | 19 |
| 1899 연소. 가속화된 분해의 과정..... | 20 |
| 0974a 불사. 영원. 자살..... | 21 |
| 0974b 불사. 영원. 자살..... | 22 |
| 6005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 | 22 |
| 3794 자유의지. 성장의 중단..... | 23 |
| 5605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자를 깨어나게 하는 일..... | 25 |
| 4305 불쌍한 혼을 위한 기도..... | 26 |
| 7386 저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구속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 | 27 |
| 3135 종말의 때의 은혜. 종말 전의 죽음. 저 세상..... | 28 |

생명의 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B.D. No. 2776

1943년 6월 16일

인간의 혼의 성숙한 정도가 아직 아주 낮은 동안에는, 사람 안에 살려는 의지가 강하게 발달되어 있다. 이 일은 또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면 세상이 그를 포로로 잡고 있고, 그가 소원을 성취한 것으로 속이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계속되는 삶을 믿는 믿음이 없는 동안에는, 이 땅의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 인간에게 극도로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왜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삶 전체를 다르게 보게 하기 때문이다.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단지 실제적인 삶이 시작되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에 머무는 장소로, 학교로 생각한다. 이런 믿음이 그에게 이 땅의 삶의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은 자주 이 땅의 삶의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 앞에 주저앉고, 삶을 최종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요구를 받는다면, 쉽게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다. 왜냐면 그의 초점이 육체의 죽은 후의 삶에 가 있기 때문이다. 그의 소원은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일이다. 왜냐면 그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비로소 진정한 생명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람이 이 땅과 이 땅의 재물에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에는, 그의 위를 향한 추구는 방해 받고, 온 감각으로 세상을 갈망한다.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한다는 생각은 그가 견딜 수 없는 그를 압박하는 생각이다. 이를 통해 그의 영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왜냐면 세상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인간은 아직 아주 성숙하지 못한 영이다. 다시 말해 그의 혼은 아직 자신 안의 영과 하나가 되지 못했고, 그에게 깨달음이 없고, 이 땅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죽음에 대한 모든 생각은 그에게 끔찍한 생각이다. 그는 즐기기 위해 살기를 원하고, 세상의 재물을 갈망하고, 영적인 재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상태는 아무리 책망해도 충만하게 책망할 수 없는 영적으로 저조한 상태이고, 사람은 이제 세상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생명을 잃을 가장 큰 위험에 처한다.

왜냐면 그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이루기 위해 이 땅의 삶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 땅의 삶을 헛되이 산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영적인 죽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물질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이 땅의 삶을 더 빠르게 포기해야만 한다. 왜냐면 이 땅의 삶은 영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혼이 더 높은 성장하고, 물질을 극복하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인간의 실제 과제를 무시하다면, 그는 스스로 자신을 물질에 묶고, 이제 그의 이 땅의 삶을 끝냄으로써 강제적으로 물질을 벗어나게 해야만 한다.

육체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동안에는 그는 자신의 이 땅의 실제 과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삶을 향한 의지가 그에게 아주 강해서, 생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 가운데, 그러나 그러면서도 조기에 생명을 잃게 되어야만 할까 봐 두려움을 느끼는 가운데, 그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한다. 저세상의 나라를 보면서, 혼이 계속 산다는 믿으면서 비로소 죽음은 공포를 잃기 시작한다. 왜냐면 그러면 인간은 자신의 이 땅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는 실제적인 삶의 예비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아멘

(책 33 은 2576 번의 계시로 끝난다.

책 34 에는 2733-2746 의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

책 35/36 에는 2747-2776 의 계시가 포함되어 있다.

책 37은 2777번 게시로 시작이 된다.

나열되지 않은 게시는 베르타 듀데의 원고에도 누락되어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B.D. No. 6616

1956년 8월 8일

죽음은 단지 영원히 지속되는 생명으로 가는 통로이다. 너희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이 내 뜻과 일치하고 너희가 이 땅의 과정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았다면, 너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가 죽음 앞의 어떤 공포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너희 혼이 이 땅의 육체가 완전히 불필요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육체를 벗어날 수 있게 된 일을 단지 기뻐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 된다고 말할 수 없고 자유롭고 빛과 생명이 충만한 삶이 혼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했고 그는 육체의 죽음 후에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올바른 삶의 방식이 세상적인 육체가 영적인 육체로 단지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사람은 계속 존재하고 단지 그의 걸 형체가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영의 나라에 머물기 위해 이런 걸 형체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너희 모두는 너희 자신에게서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고 죽음은 진실로 그의 가시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이 죽음 후의 삶을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의 나라에 머물기 위해 너희 자신을 준비하지 않는다. 너희의 혼이 육체의 죽음 후에 빛으로 충만한 빛나는 영적인 옷을 입을 전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는 올바른 두려움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사라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땅의 무거움이 아직 너희에게 달라붙을 수 있고 육체의 죽음 후에 깨어나는 일이 즐거운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혼이 얼마나 온전하지 못하든 상관이 없이 너희는 깨어날 것이고 혼은 자신이 소멸되지 않았고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무의식적으로 이런 운명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너희는 죽음을 이긴 분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영원히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라. 불안한 때에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너희의 혼을 의탁하라. 그가 혼을 죽음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가 너희 혼에게 공황을 베풀고 너희 혼이 생명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주기를 구하라. 너희는 진실로 이런 기도를 절대로 헛되이 말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축복된 평안이 임할 것이다. 이 안식은 단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력이 있게 믿는 믿음이 모든 죽음의 공포를 물리친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자신이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가 무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무로 사라져 소멸 된다고 믿는다. 이런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이 땅의 삶을 산 모든 사람들은 끔찍한 깨어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 자신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오

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유일하게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을 부르면, 그들은 단지 그들의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죽음은 단지 새롭고 불멸한 생명으로 전환되는 일이고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극복했고 구속 역사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는 그의 대적자가 세상에 가져온 상태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켰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와 예수의 부활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알지만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속사역과 부활로 인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생명력 있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굳은 확신을 주고 죽음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제거한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잠들고 빛과 축복의 나라의 주님이 계신 곳에서 기쁨으로 깨어나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들에게 영원히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에 대한 두려움.

B.D. No. 6637

1956년 9월 6일

영적인 죽음은 세상적인 죽음보다 더 끔찍하다. 영적인 죽음은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왜냐면 이 두려움은 육체의 죽음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될지 대한 죽음 후에도 계속 산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빠지는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혼이 불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혼이 이런 두려운 의식을 육체에게 전한다. 그러므로 육체는 그에게 가능한 동안 죽음에 대항해 거부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원하지 않는 가운데 혼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면 그 사람에게 모든 깨달음이 부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도움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도움을 청하기만 했으면, 그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혼은 전적인 밤 가운데 있고 혼이 다가가고 있는 더 깊은 밤을 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성숙한 혼은 전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그들의 마지막 시간을 기다린다. 혼은 그의 육신의 곁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길 갈망하고 자신이 믿는 분에게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그에게 의탁하고 그의 긍휼에 의탁한다. 이런 혼들은 자주 이미 죽기 전에 그들이 기다리는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 혼은 행복한 가운데 눈을 열고 육체를 떠나 그들이 보았던 나라로 도피하기 위해 영원히 눈을 감게 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지를 가르쳐 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이웃들이 이런 혼들이 아직 마지막 순간에 깨어나 그들을 돕기를 원하고 도울 수 있는 한 분에게 도움을 청하게 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만 한다. 혼이 죽음에 대항해 싸우고 두려워하는 일을 알게 된 사람이 이런 혼이 내적인 평안을 갖게 돕기 원하면, 그런 모든 사람들은 조용하고 긴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드릴 수 있다. 왜냐면 모든 혼이 이런 도움을 느낄 것이고 마지막 구원의 닻줄을 붙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혼이 육체를 떠나면, 혼은 이웃의 사랑에 의해 도움을 청하는 긴밀한 기도에 자신의 귀를 닫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진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로써 아직 빛과 올바른 깨달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이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혼들을 사람들이 아주 특별하게 도와줘야 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혼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 자신이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낀다면, 혼이 축복된 평안으로 충만했을 것이다. 두려워하는 혼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가장 큰 공훈과 사랑의 역사이다. 그러나 도움을 주는 일은 이제 단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부르고 그가 이런 혼을 공훈히 여기도록 기도하는 일이고 이런 사랑의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이다. 기도는 혼에게 혼이 가장 어두운 밤을 피하게 해주는 구원이 될 수 있다.

아멘

죽음 후의 때를 기억하라.

B.D. No. 6625

1956년 8월 18일

너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의 육신을 벗어야만 하고 너희 혼은 다른 거처를 배정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중 어느 누구도 너희의 운명을 피할 수 없고 모두가 자신의 육체의 종말을 기대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한 가지를 알고 있다. 즉 너희의 이 땅의 기간에 제한이 있고 그의 때가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확신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땅의 삶이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될 것처럼 이 땅의 삶을 산다. 너희는 미래의 때를 계속 누리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일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확실하게 일어나는 일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되지 않는 이 땅의 짧은 삶을 위해 일하고 역사한다. 그러나 너희 자신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혼은 육체가 죽은 후에도 살아 있게 될 것이다. 너희 혼이 실제적인 너희 자신이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너희에게 죽음은 없고 단지 너희의 거처를 바꾼다. 너희가 이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너희의 상태가 너희를 행복하게 하도록 돌보면, 너희가 지혜롭게 행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저세상에서 계속 사는 때도 또한 너희가 돌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세상의 삶의 상태는 너희의 이 땅의 삶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너희가 이를 믿는다면, 너희 모두는 더 열심히 추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신체의 보존에 관심이 많을 수록 너희가 계속 살 것이라는 믿음이 줄어들고 너희가 계속 살 것에 대한 증거를 너희에게 줄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의 이 땅의 삶이 두려움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두려움이 죽음 후에도 계속되는 삶에 대한 모든 확신을 갖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자유의지로 높은 곳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원하여 추구하는 사람은 실제 자신 안에 확신을 가지고 있고 믿는다. 그러므로 그는 높은 곳을 추구한다. 두려움에서 나온 추구는 온전함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 사람들에게 죽음 후에 계속되는 삶을 증명해 줄 수 없다.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계속되는 삶을 믿는 믿음이 깨어나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이 빠르게 헛되게 된다는 것을 항상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삶의 한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을 매일 빼앗길 수 있는 선물로 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는 단지 이웃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 그에게 임하는 생각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는 단지 죽

은 사람을 무한의 세계까지 생각하면 되고 죽은 사람이 소멸되지 않았고 단지 그의 거처를 바꿨다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진실로 영의 나라에서 그를 끌어당기기 원하는 손이 그에게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계속되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고 이웃의 죽음을 기회로 계속되는 삶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하고 자신이 갑자기 부름을 받게 되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질문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후의 삶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동안에는 사람은 항상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이 땅에서 단지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혼을 돌보고 영의 나라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간의 영적 부름이 땅에서 모으는 일을 한다면, 그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혼은 사람이 땅에 뿌린 것을 거둘 것이고 이 땅에서 영원을 위해 미리 준비한 혼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죽음의 순간.

B.D. No. 2348

1942년 5월 27일

혼 이 육체와 분리되는 과정은 대부분의 육체가 큰 고통을 느끼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고통 없이 분리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장정도가 요구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성장 정도에 희귀하게 도달하기 때문이다. 항상 죽음의 순간이 사람들에게 그가 죽은 후에 추구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그가 인간의 걸 형체를 벗게 되면,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의 혼의 상태에 따라 이제 죽음의 순간이 그에게 크거나 적게 힘들게 될 것이다.

사람이 아직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에게 또한 자신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혼이 육체를 떠나기 전에, 저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도록 창조주가 혼에게 기회를 준다면, 혼은 저 세상에서 자신의 창조주에게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하기 때문에, 혼이 저 세상에서 자신의 운명을 짊어져야만 하고, 성장 정도에 도달하기 위해 더 큰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고난이 없이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이 혼에게 더 높은 성장 정도를 가져다줘야만 하고, 죽기 전에 오랜 기간 투쟁하는 일은 항상 높은 곳으로 성장하기 위한 일로 여겨야만 한다.

사람들은 실제 단지 고난의 상태만을 보고, 이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순간을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단지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아주 큰 사랑이 저 세상에서 그에게 더욱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 사람들에게 죽음의 순간을 갖게 해준다. 이런 사랑이 모든 일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단지 사람들의 육체의 갈망이 죽도록, 사람들이 더욱 단지 자신의 혼을 생각하고, 혼을 온전하게 만들려는 시도를 하도록,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을 보낸다. 이 일을 성공시키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땅의 기간은 빠르게 지나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이 땅의 삶을 보낼 수 있다. 그러면 혼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형성하여, 그의 이 땅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빛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특별한 고난이 필요 없게 된다.

그러나 고난은 항상 혼을 성장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고난이 없었다면, 비록 죽음의 순간이 겉보기에 조용하고, 고통이 없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저 세상에서 아주 큰 고통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벗어남만 하는, 다시 말해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은혜이다. 하나님은 혼의 상태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또한 모든 순수하지 못한 것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혼의 자원하는 자세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한 의도가 실행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면서, 죽음의 순간이 그의 분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로 영원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게 하면서, 그를 향해 다가 간다.

아멘

죽음의 순간. 고난에 대한 설명.

B.D. No. 4033

1947년 4월 30일

너희는 절대로 너희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너희 죽음의 순간에 함께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비록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너희에게서 전적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영원히 자유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면, 너희의 마지막이 어렵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너희의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한다. 너희 혼이 아직 변화될 수 있다면, 죽음의 순간에도 너희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종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해야만 한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에 대한 설명을 찾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을 통해 사람들을 돕는다. 왜냐면 고난이 짧은 시간 동안에 혼이 저 세상에서 빛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성장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혼이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을 깨달으면, 혼은 자신의 창조주에게 감사할 것이다.

이처럼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여겨야만 한다. 죽음에 고난이 함께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끝맺음이 사람에게 축복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축복이다. 왜냐면 혼이 실제 고통을 통해 육체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축복된 영들의 나라로 즉시 올라가기 때문이다. 혼은 단지 육체적으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땅을 떠난다. 혼은 아직 혼을 감싸고 있는 육체의 성장한 입자를 가지고 떠난다. 왜냐면 이 땅의 모든 고난의 정도가 아직 혼을 감싸고 있는 곁형체를 분해시키기 때문이다. 이 땅에 자신을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남김없이 자유롭게 만드는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구속을 위해 이 땅의 삶을 활용하였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는 죽음의 순간에 실제 혼의 평화를 위해 싸울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육체의 고통을 불의로 느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그의 혼이 육체가 죽고, 육체의 고통이 끝나는 것을 알고, 비록 혼이 이런 깨달음을 육체에게 더 이상 전해줄 수 없을 지라도, 육체의 고통을 통해 혼이 유익을 취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육체가 혼의 온전함을 느끼면, 육체는 혼에게 거할 장소를 제공하는 자신의 과제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혼과 분리된다. 죽음의 순간은 너희 모두에게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혼에게 더 이상 고난이 필요하지 않으면, 혼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단지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 자신의 나라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면, 죽음의 순간은 너희가 빛의 나라에서 깨어나기 위해 너희에게 축복된 잠이 드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죽음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고난이 아직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그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 육체가 단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혼은 전적인 기쁨으로 육체를 떠나고 빛의 영역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아멘

죽음 후에도 혼은 계속 산다.

B.D. No. 7343

1959년 4월 22일

비록 육체가 죽을지라도 너희가 산다는 한가지를 너희는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의 육체의 죽음 후에 너희가 어떠한 상태에서 살게 될지는 즉 너희 삶이 실제로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될지 또는 죽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사랑없음과 무기력한 상태에서 그러나 너희가 아직 존재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당해야만 하는 상태에 거하게 될지는 너희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너희가 전적으로 소멸되는 일은 너희 자신에 대해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일은 너희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는 동안에 너희에게 행복한 상태를 만드는 일이 너희의 염려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때 저세상에서 가질 너희의 운명은 너희 자신의 고유의 의지에 관련 된 일이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이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너희의 삶의 방식에 따라 이 운명을 만들어 나간다. 삶의 방식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 사랑이라면, 너희는 너희에게 축복된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너희 자신을 위해 살면, 너희에게 이웃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면 너희는 확실하게 고통이 가득한 상태를 기다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너희는 너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빛과 능력과 자유가 부족한 것을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이 땅의 너희의 사람들이 계속해 산다는 것을 아주 적게 믿는 일이 너희의 삶의 방식을 정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의 육신이 사라질지라도 혼은 계속해 존재함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혼에 대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진짜 너희 자신이 혼임을 믿지 않는다. 혼이 이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똑 같이 느끼고 자신의 행복과 밝음을 갈망하고 언젠가 깨달음의 빛 줄기를 얻으면, 혼은 자신의 실제 이 땅의 과제를 깨닫고 돌아보면서 이 과제를 성취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가장 쓰라린 후회를 한다.

반면에 빛이 충만한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혼은 찬양과 감사를 노래할 것이고 충만한 능력과 자유 가운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다. 소멸이 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혼이 어떠한 상태로 계속 존재하는 것을 느낄지는 너희 사람들 스스로 이 땅에서 정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육신을 입기 시작할 때 아직 부족한 혼의 상태를 개선시키게 너희에게 이 땅의 시간이 주어 졌기 때문이다. (1959년 4월 22일) 그러므로 자신에게 올바르게 쇠하지 않는

생명을 주는 일이 사람의 혼의 일이 되어 한다. 그래서 언젠가 자유와 빛 가운데 혼이 자신의 성장 상태에 따라 역사할 수 있는 나라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한다.

실제 도달할 수 있는 성장 상태는 여러 가지 성장 단계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항상 혼이 언젠가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이 이 땅의 삶의 마지막에 가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족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심지어 더욱 어둡게 될 수 있다.

그러면 혼의 상태는 죽음의 상태와 같다. 그러면 혼은 이 땅의 삶을 잘못 사용한 것이고 혼은 육신을 입는 은혜를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혼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이 상태는 아주 슬프고 불쌍히 여길 만한 상태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잘못이다. 왜냐면 사람의 의지만이 혼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의지는 자유하다.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 후에 계속 존재함을 믿기 원했으면, 그들은 이 땅에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가장 깊고도 깊은 곳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사람에게도 믿게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믿음에 도달하게 모든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

아멘

죽음을 염두에 두라.

B.D. No. 2912

1943년 10월 6일

죽음의 시간을 명백하게 의식하라. 너희 자신에게 너희가 영원을 위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질문하라. 너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이 너희의 이 땅의 기간을 위해 너희에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계산해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합격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라. 너희의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지 점검해보라. 너희가 사랑을 실천했는지 점검해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매시간 이 땅을 떠날 준비가 돼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라. 죽음으로 너희의 힘도 끝이 난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의 혼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이 땅을 떠나면, 너희가 더 이상 너희의 힘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생각하라. 너희 자신이 만족하는 가운데,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지 자문해보라.

자신에 대해 가장 엄격한 비판을 하라.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아직 너희에게 주어진 매일을 활용하라.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아직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아직 너희를 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너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랑을 행함으로 이 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죽음을 명심하라. 하나님이 죽음의 시간을 정하면, 너희가 한 시간도 늦출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달으라. 하나님께 긴밀하게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원을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너희의 성장을 보장해주는 힘을 너희에게 주기를 구하라.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나게 되는 목표를 단지 명심하라. 이런 목표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킨 것이다. 항상 매일이 이 땅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다고 생

각하라. 그러면 너희는 자신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의식적으로 살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없이 너희의 진정한 고향인 평화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혼의 거처를 바꾸는 일. 육체의 죽음.

B.D. No. 6817

1957년 4월 28일

혼은 실제의 너희 자신이고 불멸하다. 혼은 이 땅의 과정을 마치게 되는 육체의 죽음 후에 혼이 단지 나에 대한 저항을 하는 가운데 머물러 이런 저항을 통해 깊은 곳으로 빠지지 않으면, 다른 영역에서 계속 살며 계속 성장하기 위해 거하는 장소를 바꾼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을 떠나야만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야 하고 인간으로 사는 이 땅의 삶이 너희에게 지금까지 해줄 수 있었던 아름다움과 행복함보다 다른 영역에서 사는 삶이 더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

너희는 실제적인 너희 자신이 걸형체를 벗는 날을 희망의 기쁨을 가지고 맞이해야 하고 어려움이 너희로부터 사라지는 날과 너희가 가볍게 어려움이 없이 진실로 너희가 예상할 수 없는 영광을 제공하는 진정한 고향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날을 희망의 기쁨을 가지고 맞이해야 한다. 너희 혼이 단지 혼을 끝없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장소로 바꾸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이상 죽음이 없음을 너희는 기뻐해야만 한다. 너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편안하지 못한 가운데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느냐?

왜 너희 사람들에게 죽음이 끔찍한 일이 되었느냐? 왜 진실로 단지 다른 영역으로 옮기는 과정이 너희 안에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느냐?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았음을 너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느끼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 혼이 너희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었을 빛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이 내 사랑의 계명을 성취시키고 그가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살았다면,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세상의 걸형체를 벗기를 갈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에게 자신의 진정한 고향을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 안에 사랑이 밝은 빛이 타오르게 하고 그가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나 고통도 없고 그가 어떠한 환란도 더 이상 당하지 않는 내 사랑 안에서 자신이 안심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을 미리 바라보면서 내가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단지 항상 그에게 선명하게 내 뜻을 알려주는 내면의 음성을 따르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기 원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이미 그들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면, 자신이 죽은 후에 고난이 충만하고 어려운 환경을 이런 보호와 바꾸는 축복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은 그가 이 땅의 삶을 내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가장 좋은 증거이다. 왜냐면 이런 생각은 사람들이 올바른 깨달음의 도달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그러므로 전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삶을 항상 더욱 증가시키려는 대적하는 영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들은 걸형체에게 주어진 제한을 똑 같이 자신에게도 적용시킨다.

그들은 그들의 부족한 변화로 인해 예상할 수 없는 축복이 그들을 기다리는 영역으로 영접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후에 아주 절망적인 운명을 짊어져야만 하는 혼과 그들의 진정한 고향의 영광을 전혀 체험할 수 없는 혼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단지 자신의 육체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삶을 모든 방식으로 누리려고 한다. 비록 혼에게 깊은 곳을 벗어나 높은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를 위해 이 땅에서 보다 더 많은 극복하는 일과 수고가 필요하고 도움이 없이는 이를 수 없고 혼 자신이 의지를 드러야만 하고 이 일을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훨씬 더 쉽다.

나는 소멸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그 자신의 행복한 운명이나 또는 고통스런 운명을 만든다. 사람들이 그들의 육체가 사는 것으로 보지 않고 육체 안에 거하는 혼을 자신의 실제적인 자기라는 것을 깨닫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믿는 법을 배우면, 그들은 비로소 이 땅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 것이고 단지 세상의 육체에게만 해당되는 그러나 육체 안에 거하는 혼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고 혼들은 이제 자신의 진정한 고향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자신의 곁형체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시간을 갈망할 것이다.

아멘

혼의 수면. 잘못 된 가르침.

B.D. No. 6541

1956년 5월 6일

이 땅을 떠난 혼이 심판이 날이 임할 때까지 영원한 잠을 잔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 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혼의 성장 과정에 대해 전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런 생각은 더 나아가 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죽음 후에 혼이 계속 산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왜냐면 영원한 기간 동안 죽음의 잠을 잔다는 것은 사람들이 영접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사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잘못 된 생각이 이 땅을 떠난 혼들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왜냐면 이런 혼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혼들이 아주 필요할 수 있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런 관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잘못 된 가르침을 받아 아직 이런 오류를 복음처럼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가르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일은 분명하게 사람들이 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막기 원하는 대적자의 역사이다. 왜냐면 이런 기도가 대적자가 묶어 두려고 시도하는 혼들을 자유롭게 되게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가 이런 잘못 된 가르침을 대항할지라도 사람들은 그들에게 선명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오류를 수정해주는 사람들을 믿기를 원하지 않으면, 단지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설명해주기를 구하면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않고 그러므로 그들은 가르칠 수 없고 오류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이런 혼들은 기도를 통해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큰 위험 가운데 있고 이 땅에 사람들도 영의 나라로부터 더 나은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 왜냐면 그들이 빛의 세계와 이 땅에 사람과의 연결을 믿지 않고 생각으로 이런 지식을 가진 세력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단지 인간으로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유효하다. 마치

막 심판의 날까지 혼이 영원히 잠을 잔다는 그들의 생각은 영적인 존재들이 구속을 받는 과정에 관한 어떠한 지식도 없고 사랑과 지혜와 전능한 내 성품과 예수의 구속사역에 관해 어떠한 지식도 없다는 것을 단지 증명한다.

그들의 지식은 아주 제한되어 있고 가장 적게라도 진리에 합당하지 않다. 그들에게 진리가 가까이 다가오면, 그들은 진리를 거부한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증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깨어난 영이 이런 성경의 구절을 찾게 하지 않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면, 내 말씀도 활용하는 내 대적자가 찾게 한다. 그러나 사람의 이성이 역사하고 사람이 설명을 받기 위해 나 자신에게 영을 통한 깨달음을 달라고 구하지 않는 곳에서 내 대적자는 단지 성공한다.

문자는 죽이고 영이 비로소 생명력이 있게 한다. 문자가 그의 생각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도록 자신을 나에게 드리지 않는 사람이 진실로 죽음으로 향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왜냐면 내 대적자도 문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전적으로 다른 의미로 해석해 가장 큰 오류를 사람들이 영접할 만하게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혼이 죽음의 잠을 잔다는 가르침은 진실로 문제가 있는 가르침이다. 이런 가르침은 저세상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혼들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이런 혼들은 살아 있지만 아주 연약해서 사랑의 기도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모든 힘에 대해 감사하는 혼들이다.

사람들은 이런 혼들을 자주 기도하며 돌봐야 한다. 이로써 혼들이 힘을 얻고 위로 성장하게 하고 이제 그들 편에서 이 땅에서 이런 잘못 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신들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 생각을 통해 역사할 수 있게 된다. 이 땅에서 행한 사랑의 삶이 혼에게 곧 밝은 깨달음을 줄 것이다. 그럴지라도 혼이 자신이 일할 영역을 받기 전에 혼은 먼저 오류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야만 한다. 왜냐면 영의 나라에서 하는 모든 일은 순수한 진리를 전하는 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혼은 쉽게 잘못 된 관점이나 오류를 가진 영적인 내 용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행복한 혼이다. 그러나 다른 혼들은 가장 큰 위험 가운데 있다. 왜냐면 모든 잘못 된 가르침은 혼에게 해를 입히는 역사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원한 죽음의 잠을 잔다는 가르침은 특별히 해롭다. 왜냐면 이 가르침은 실제 죽음과 같은 어둠으로 인도할 수 있고 동시에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믿음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런 가르침이 잘못 된 것인지 밝고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긴 수명과 짧은 수명.

B.D. No. 7538

1960년 3월 4일

너희에게 이 땅의 삶을 위해 주어진 시간은 너희 스스로 시간적으로 가늠해볼 수 없는 너희의 이 전의 성장 과정에 걸린 긴 시간과 비교하면, 길지 않다. 너희가 일찍이 영원한 세계로 부름을 받음으로써 너희의 이 땅의 삶의 기간이 짧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열심으로 너희 혼을 돌봐야 한다.

너희에게 항상 단지 가능한한 너희는 혼에게 제공해야 한다. 너희가 이 땅에서 거하는 기간이 단지 짧으면, 너희는 혼에게 양식을 제공해 혼이 굶주리지 않게 해야 한다. 너희는 항상 풍성하게 음식과 음료를 혼에게 제공하고 절대로 아주 오랜 동안 이 땅에 살게 될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너희는 육신이 죽게 되는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의 의지가 선하고 혼이 성장하게 도우면, 혼은 아주 짧은 시간에 성장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수명을 정하거나 수명을 알 수 없다. 바로 이런 무지가 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혼의 구원을 두려워해야만 할 필요가 없게 편안한 가운데 매일을 자신의 마지막 날로 볼 수 있게 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왜냐면 큰 구별을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혼의 구원을 위해 일찍이 부름을 받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혼을 위해 작업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들이 이런 혼들을 이 전에 대적자로부터 빼앗지 않으면 항상 더욱 깊은 곳으로 끌어 들이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대적자의 분노에 희생자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영적인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찍이 죽는다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 없이 산다. 그러나 나쁜 삶이라고는 할 수 없게 산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은 저세상에서 계속해 성장하게 그들을 돕길 원한다. 저세상에서 비록 성장하기가 더욱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전혀 책임감이 없이 이 땅의 삶을 사는 그들이 이 땅에서는 쉽게 전적으로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의 혼의 운명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성장이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에게 성장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주어진다. 그러나 너희가 이 기회를 활용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단지 너희의 혼의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이 땅의 삶을 활용하지 않은 것이 된다. 너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은혜를 활용하지 않고 너희 혼이 마지막 성장을 하게 돕지 않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거할지 또는 짧게 거할지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고령에 도달할지라도 이 땅의 삶은 너희의 이전의 성장 기간에 비할 때 짧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럴지라도 이런 아주 짧은 이 땅에 거하는 기간이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의 목적을 성취시키는데 충분하다. 그러므로 너희의 성숙함은 이 땅에 존재하는 기간에 달려 있지 않고 단지 이 기간을 목적에 합당하게 활용하려는 너희의 의지에 달려있다.

너희의 혼이 완성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항상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길이 너희에게 제시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강조한다. 이 계명을 성취시키는 일이 너희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이다. 너희는 항상 사랑을 행할 수 있다.

비록 너희의 삶이 아주 짧을지라도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사랑 안에서 살면, 너희 혼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의 삶은 헛되고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너희의 책임은 더욱 클 것이다. 만약에 너희의 삶이 짧아지고 너희

모두가 자신이 역사한대로 심판을 받는 마지막 날에 전적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저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너희에게 남아 있으면, 너희는 단지 감사해야 한다.

아멘

어린 아이들의 죽음

B.D. No. 8772

1964년 3월 7일

이 땅에서 너희의 도움이 필요 하기 때문에 너희의 자유의지가 선행이 될 경우에 나는 너희에게 능력을 부여할 것이다. 나는 실제로 나를 위해 그릇을 선택할 수 있고 그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내 영원한 질서의 법칙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의지 만이 정할 수 있고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의지 만이 성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를 위해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행할 수 있기 위한 선행조건이 부족한 사람들이 자주 있다. 그러므로 나는 누가 이런 일을 자유의지로 하려고 하는지 나에게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삼길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이런 그릇들을 유지할 줄을 알고 있고 모든 위험한 환경 가운데 인도하며 세상을 향한 소원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없고 그가 단지 가장 중요하게 깨달은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 그의 세상적인 소원을 전적으로 뒤로 할 때 특별히 인도한다.

그러므로 포도원 농부의 일이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열린 귀를 가지고 자신 스스로 나와 연결이 되려고 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 땅의 내 종들을 통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너희의 노력은 항상 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내 나라에 많은 학교들이 있다는 것을 모든 우주 안에 한때 타락했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의 성장을 돕는 창조물들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었다. 모든 창조물들은 자신의 고유의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은 존재들이 항상 성장하게 섬기는 일이다. 존재들의 상태에 따라 창조물 안의 생활 형편이 달라 진다.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혼들은 나만이 알 수 있는 특정한 기질 때문에 다른 행성에서 성장을 할 수 있게 다시 다른 행성에서 육신을 입게 된다.

이런 혼들은 이 땅에 인간으로 다시 육신을 입을 수 있다. 그러면 그에게 사명이 주어 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작은 어린이들의 그리고 가장 작은 어린이들의 죽음을 너희에게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의 혼이 이 땅의 과정을 거칠 정도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과 그들이 더 이상 나를 대적한다고 여길 수 없어서 내가 다른 수 많은 학교에서 그들에게 계속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존재들에게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학교에서 이들 대부분은 그들의 과제를 성취시킨다.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들은 영의 나라에서 복된 상태에 도달한다. 그들이 이미 높은 빛의 정도의 도달했으면 다시 사명을 목적으로 이 땅에 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을 수 있다. 한 혼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데는 수많은 환경조건들과 기질들과 그리고 이 전 단계에서 이미 도달한 성장 정도가 역할을 한다.

도달한 성장 정도에서 다시 뒤 떨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뒤 떨어질 수가 있다. 자신의 상태에 맞지 않는 모태에서 육신을 입는다면,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커져서

전적으로 실패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이 혼을 그의 곁형체로부터 자유롭게 해서 높은 곳을 향한 그의 성장이 쉽고 확실한 곳으로 옮겨 준다. 왜냐면 이 혼은 더 이상 전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때 타락한 자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도울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다. 만약에 존재들이 이 땅의 과정을 거칠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 땅은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창조물이지만 그에게 가장 높은 영적인 성공을 줄 수 있다.

자유의지가 또는 다른 이유가 혼의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지를 나는 이전에 미리 볼 수 있어 나는 혼이 그에게 주어진 운명 속에서 견딜 수 없고 의지적으로 나를 대적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항상 돕는 역사를 한다. 너희 사람들은 이를 판단할 수 없다. 모든 것에는 내 사랑과 지혜 안에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린 아이들의 죽음을 내 편에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영접해야만 한다.

왜냐면 어떤 것도 목적과 의미가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단지 한때 나로부터 떠나간 존재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영적인 것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번 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나는 끝 없이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 너희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고 사역하게 하였는지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항상 연약한 자들을 돌봐 주고 모든 방식으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한 혼의 저항하는 정도를 알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그의 저항력이 줄어 들었는지 줄어들 것인지 또는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에 합당하게 나는 혼들을 그들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 (1964년 3월 7일)

이 땅의 과정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권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나는 혼에게 이미 도달할 성장 정도를 잃고서 뒤 떨어질 위험이 있는지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 안다. 그러면 나는 이 의지가 뒤떨어지는 것을 제외시킬 수 없지만 자유의지를 정할 정도가 아닌 단지 나를 향한 아주 적은 저항을 고려해서 이를 막는다. 그러나 혼은 이 전에 그가 이 땅에서 인간으로써 육신을 입고 살지를 결정해야만 하고 그의 의지대로 이루어 진다. 강제적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이들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다른 행성에서 다른 조건하에 있게 될지라도 그들의 성장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이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다. 모든 혼들은 그들이 진지하게 원하면, 그리고 정해진 성장 정도에 이르렀고 자유의지로 이런 혼들에게 주어지는 큰 요구를 성취해야 하는 사명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인간으로 임할 수 있다.

너희 사람들은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없다. 너희는 내 역사와 사역을 전적으로 이해할 수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피조물들 높은 곳으로 도달하게 도울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을 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이 땅의 삶의 과정과 결과를 안다. 그럴지라도 나는 단지 자원하는 혼들을 돕기 위해 간섭을 하여 나 자신이 단지 나만이 알고 있는 악한 과정에 변화를 시킨다.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삶을 사는 것은 어렵다. 이 땅의 삶을 영적으로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는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나는 연약한 자를 만약에 그가 더 이상 강력한 저항을 하지 않으면 항상 돕는다. 어떠한 방식으로 내 도움이 주어지게 될 지는 내 사랑과 지혜에 맡겨 두어야만 한다. 항상 내 피조물들의 마지막 성장을 돕는 것이 내 노력이 될 것이다.

나는 내가 항상 성공할 수 있는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내 자녀들을 원하고 이미 나를 추구하는 어느 누구도 내가 이들을 알아보고 이들에게 알맞게 역사할 것이고 이들이 멸망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조기 사망. 하나님의 긍휼. 높은 나이.

B.D. No. 3260

1944년 9월 18일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해진 상태에서 이 땅의 삶에서 영의 나라로 부름 받을 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 이런 일이 또한 겉으로 보기에 불의한 일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 위해 택한 반면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고통 당해야만 한다는 사람들의 관점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항상 알고, 이로써 이 땅에서 더 높게 성장하는 일이 의문시 될 때, 비로소 생명을 끝내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역사하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 전의 묶임을 받은 상태에서는, 존재가 마지막으로 육신을 입는 일을 허용 받는 성장 정도에 도달하기 까지 항상 단지 성장해 나간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가 스스로 그의 성장 과정을 계속 갈지, 정지시킬지 또는 퇴보하게 할지를 정한다. 이런 일은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써 초기에 가졌던 자신의 성장 상태를 증가시켰는지, 그런 후 자신의 성장이 정체되는 위험에 빠졌는지 또는 그가 그의 육신을 입기 시작할 때와 같은 수준에 머물고, 그런 후 퇴보할 위험에 빠졌는지에 달려 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높게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들이는 일은,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가 계속 퇴보하거나, 계속되는 삶을 자신의 혼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일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이다. 왜냐면 그가 육신을 입는 은혜의 기간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더 오래 살게 되면, 그의 죄짐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젊은 나이에 높은 곳을 추구하고, 그의 추구를 중단한다면, 그의 지금까지의 성장이 지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드리고, 그에게 저세상에 계속 성장할 기회들을 준다.

그러나 또한 사람이 노년에 자신의 의지를 바꿀 수 있고, 그러면 그에게 아직 부족한 성장이 갑자기 상승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의 오랜 동안 자신의 혼을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는 더 높은 성장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가 장수하게 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인간의 뜻을 알고, 그에 따라 그의 삶을 정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의해 정해지고, 절대로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이 맘대로 정한 것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이 땅에서 성장할 기회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 이 땅에서 성장할 기회를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적게 주의를 받고, 사람들은 이에 합당한 가르침을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영원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아주 특별하게 자신을 거부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언제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에 도달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의 이 땅의 수명도 영원으로부터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목적에 아주 합당하고

성공적으로 깨달은 대로 수명은 아주 서로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더 높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 땅의 삶을 절대로 조기에 끝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계속하여 인간이 이 땅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성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돌보고, 성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절대로 인간으로부터 빼앗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으로부터 인간의 의지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자주 혼이 완전한 배도하는 일로부터 보호한다. 즉 하나님의 그의 이 땅의 삶을 끝내지 않으면, 맞이하게 될 퇴보로부터 혼을 구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높은 나이에 도달한다. 반대로 높은 나이는 주변 세계가 볼 수 없을지라도 서서히 성장하는 일을 증명한다. 장수하는 일은 항상 은혜이다. 그러나 단명한 삶도, 비록 사람이 항상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항상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다.

아멘

이 땅을 일찍 떠나는 일. 목적.

B.D. No. 3258

1944년 9월 16일

사람들이 계속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져 죽게 되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고 비참하게 하는 일을 무기력하게 당한다면, 죽음이 항상 그들 가까이에 있게 된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난의 실제 원인과 사람들이 일찍이 죽는 일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난은 항상 더욱 고통스러운 형태가 되고, 인류는 전적으로 놀라는 가운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것이고, 그들에게 다가온 큰 불행에 경직될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와 다른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의 비참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이를 통해 자신의 혼을 위해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게으름을 벗어나도록 그들을 깨우기 위해 가장 극심한 수단을 사용한다. 왜냐면 사람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의 혼이 이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운명적인 일들에 관심이 없다.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자세가 이 땅에 고난이 증가되는 원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바꾸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일찍이 목숨을 잃게 되어야만 한다. 왜냐면 오래 사는 일이 그들의 믿음을 전적으로 잃게 하고, 단지 전적으로 세상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혼에게 유익이 되기 보다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족한 성장정도에도 불구하고 셀 수 없이 퇴보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들이 저 세상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을 허용한다. 왜냐면 그들에게 이 땅의 상태가 숨겨져 잊지 않고, 그들이 계속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고, 그들의 혼의 구원을 등한시 했기 때문에, 잘못된 삶 때문에, 믿음 없음과 사랑이 없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 자신에게 어려운 이 땅의 고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깨달음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일찍이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그들은 아직 자신을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시킬 수 있고, 큰 고난을 통해 정화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은 그들의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삶이 주지 못한, 높은 성장 정도에 도달하게 한

다. 그러면 일찍이 목숨을 잃는 일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이 땅의 세상의 고난이 아주 크다 할지라도, 이는 단지 혼을 얻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러나 단지 소수의 사람이 이를 깨닫는다.


큰 고난이, 그들이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린다면, 모든 위험을 물리칠 수 있고, 물리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큰 위험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전적으로 깊은 곳으로 떨어질 가장 큰 위험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을 끝마치게 하고, 비 인간적으로 보이는 불행을 허용한다. 왜냐면 그는 항상 사람의 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가운데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혼을 구하려고 시도한다. 왜냐면 그가 행하는 어떤 일도 잘못이 없고, 모든 일이 선하고, 사람들의 혼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연소. 가속화된 분해의 과정.

B.D. No. 1899

1941년 4월 28일

 든 것이 구원을 향해 간다. 왜냐면 모든 것이 더 높은 성장의 과정을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존재가 이제 물질과 분리된다면, 영적인 존재는 물질을 극복한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항상 완전히 성숙하여 이 땅의 변형된 형체가 필요없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는 마찬가지로 물질인, 새로운 형체 안에 거한다.

그러나 사람 안의 영적인 존재인 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자 마자, 이 땅의 형체의 변화는 중단이 된다. 즉 혼이 이 땅의 마지막 형체를 벗어나, 이제 어려움이 없이 모든 물질을 벗어나, 이 땅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나라로 들어간다. 이 땅의 마지막 형체인 육체이다. 육체는 이제 다시 분해가 된다. 다시 말해 이 땅의 육체를 형성하고 있던 영적인 입자들이 아직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성장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목적을 위해 영적인 입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물 안으로 들어가고, 그의 목적은 바로 영적인 존재가 더 높이 성장하는 일이다.

이제 이런 일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영적인 입자들에게 주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영적인 입자들은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만 하는 곳에서, 이런 과제를 성취하면서 섬기기 위해, 그런 창조물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왜냐면 존재가 섬김을 통해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섬길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더 높은 성장 과정이 중단이 된다. 이런 일은 존재에게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영적인 존재의 고통의 시간은 실제 단축될 수 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자신의 성장에 개입하여,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다. 인간의 몸을 이제 불태우거나, 화학적 수단으로 분해되는 과정을 가속화시키려고 시도함으로써 자연적인 분해를 방해한다면, 이런 일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에게 준 사명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존재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길로 가고, 더 고통스러운 길로 가야만 한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이 인간의 자연적인 죽음을 통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 생명의 개입하여 종결시키지 않는 한,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다시 흙이 될 것이다” 라고 정함 받은 대로 이 땅

에 넘겨져야 한다. 혼이 육체를 벗어난다면, 혼을 향한 육체의 과제는, 즉 육체를 형성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의 과제는 성취되었다. 그러나 육체가 완전히 분해가 될 때까지, 비록 이런 일이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게 보일지라도, 영적인 존재에게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주어진다. 반면에 빠르게 분해시키는 방식으로 인해 남게 된 영적인 존재는 지극히 작은 섬기는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몸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분해의 과정을 통해 혼과 합류한다고 생각하는 일은 아주 잘못된 오류이다. 곁형체의 영적인 존재는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 운명은 영적인 존재가 언젠가, 인간의 혼으로서 이 땅의 마지막 성장 과정을 다시 가기 위해, 무수한 혼의 입자들과 연합해야 하는 운명이다.

그렇지라도 이런 일은 절대로 사람들이 잘못 믿는 방식대로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에게 자신의 생각대로, 만일 그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더 높은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그는 그의 삶의 방식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와, 그의 믿음과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함으로, 또한 육체의 곁형체 안에서 가는 이 땅의 과정을 짧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함을 얻지 않는다면, 외적인 방법을 통해, 단축할 수 없는, 그의 성장을 위한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섬기는 과제를 부여할지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만 한다.

아멘

불사. 영원. 자살.

B.D. No. 0974a

1939년 6월 21일

이 땅의 자녀는 불멸의 문제와 영원의 개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한편으로 세상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것을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한편으로 문제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영적인 설명을 그에게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일이 비로소 존재에게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신성을 절대로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있다. 다음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점을 염두해야만 한다.

사람은 영적인 위험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이로써 자신이 존재하는 일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다고 믿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단지 제한된 기간 동안만 존재한다고 믿고, 그러므로 또한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불멸에 대한, 무한한 기간에 대한, 영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들 자신이 절대로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일은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생명이 언젠가 끝난다고 알고 있는 생각이 그들에게 훨씬 더 편하다.

사람들은 때때로 시간적인 종말에 대한 생각에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 후에 계속 사다는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시간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깨닫고, 결코 자신의 불멸을 믿기를 원하지 않고,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 “영원”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일은 단순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신이 존재하기를 절대로 중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에게 부담을 주고, 그 안에 책임감을 일깨워준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하게 되면, 인생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되는 일은 이해할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중단)

불사. 영원. 자살.

B.D. No. 0974b

1939년 6월 22일

그 러므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계속되는 삶을 거부할 것이고,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스스로 끝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로써 모든 것의 끝을 가져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이 땅의 생명을 끝내고, 그들의 견해가 잘못되었다면, 그들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버린 것은 단지 겉형체이고, 생명 자체가 아니다. 그들은 이 생명 자체로 계속 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생명은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도 파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명은 진정한 의미의 말 그대로 소멸되지 않고 그러므로 영원히 지속된다.

생명을 끝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자신으로부터 존재를 창조했고, 근원적인 요소가 신적인 모든 것은 결코 소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주는 자신의 지혜로 존재가 온전함에 도달하는 데 한계가 없게 했고, 또한 영원 가운데 지속적으로 높은 곳을 추구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존재는 계속해서 일하고, 주고, 또한 고갈되거나, 영원한 신성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일이 없이, 받을 수 있다.

사람들에게 불멸을 남김없이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영원"이라는 개념은 이 땅의 사람들이 적게 상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불멸하는 것이 없고, 혼의 불멸을 사람에게 증명해줄 수 없고, 그가 이를 믿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영원"이라는 시간 개념은 인간의 이성으로 분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영원을 이 땅의 어떤 것과도 같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이런 시도는 결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떤 것이 증거로 증명될 수 있을 때 그는 비로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믿음만이 남게 된다. 인간은 자신에게 증명해줄 수 없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그는 모든 영원에까지 존재가 불멸하는 것을 다른 모든 생각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해야만 한다.

아멘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

B.D. No. 6005

1954년 7월 19일

너 희의 마지막 속박과 형체로부터 최종적으로 자유롭게 되도록 너희 사람들에게 시간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내가 너희 혼에게 좋은 것으로 깨달은 대로 서로 다르게 주어졌고 내가 맘대로 너희의 이 땅의 삶을 끝내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혼의 모든 성장을 볼 수 있고 그러므로 나는 또한 이 땅에서 타락할 위험이나 또는 더 성장할 가능성을 안다.

내 사랑과 긍휼이 또한 혼의 퇴보를 막기 위해 인간의 삶을 조기에 끝내거나 또는 내가 마지막 순간에 변화될 가능성을 보고 항상 지혜로운 결정에 따라 수명을 연장시킨다. 왜냐하면 내

가 혼을 구원하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육체의 생명을 자기 맘대로 끝내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내 사랑과 긍휼에 개입하고 너희 혼이 온전하게 되도록 제공된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 구원의 계획에 개입하고 너희 혼에게 해를 끼친다. 너희는 언젠가 너희 안에서 아주 큰 후회와 자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세상에서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다. 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활용해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저세상에서 너희에게 절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제 위를 추구하고 너희 혼의 상태를 조금 향상시킬 수 있을지라도 너희는 회복이 불가능한 어떤 것을 잃었고 혼이 가라앉을 큰 위험이 있고 혼이 자기 맘대로 생명을 끝마친 일이 반항이었던 것처럼 혼이 반항하고 이런 돌아선 상태에 머물게 될 큰 위험이 있다. 이런 혼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큰 도움이 필요하지만 혼들의 뜻에 따라 그들에게 도움이 주어진다.

나는 진실로 모든 사람의 곁에 있고 또한 심지어 가장 큰 고난도 사람이 단지 나를 생각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즉시 줄어든다. 고난은 또한 단지 너희 생각을 나에게 돌리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이로써 너희가 이제 너희의 이 땅의 삶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한다. 사람에게 이 유가 없이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 왜냐면 그의 혼이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혼이 이런 고난을 통해 위험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혼이 나에 대한 저항을 강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내 뜻을 어기고 마지막 구원을 위해 내 사랑과 은혜가 혼에게 준 생명을 버리면 혼은 자신을 더 위험에 빠지게 한다. 왜냐면 혼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은 혼에게 은혜이고 내 사랑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혼이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일은 혼이 영원히 자유롭고 축복될 수 있기 위해 갈 수 있는 높은 곳을 향한 마지막 단계이다.

나는 인간 심장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진실로 공의하게 판단한다. 나는 내 피조물의 연약함을 고려한다. 그러나 내 피조물에게 잘못이 없지 않고 사람의 자유의지가 잘못 된 방향을 향하면 즉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짐을 지게 한다. 인간은 자신이 개입하는 일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끝낼 수 없고 그는 계속 고통을 당해야만 하게 될 것이고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혼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같은 방식으로 고통을 다스릴 때까지 죄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주관자인 분에게 혼이 도피할 때까지 저세상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아멘

자유의지. 성장의 중단.

B.D. No. 3794

1946년 6월 8일

나는 인간의 의지에 자유를 준다. 너희의 영이 거듭나게 되면, 너희가 자유롭지 못한 영적 존재의 구원을 위한, 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알게 되면, 너희가 비로소 인간의 의지에 자유를 주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유를 허용하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너희는, 비록 내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님이시고, 단지 나의 뜻이나 허용을 통해 모든 일이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형편을 바꾸기 원하면, 사람들이 이 전에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나의 영원한 법칙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갖는 지에 따라, 그가 나의 영원한 질서를 따르거나 반항하는 일에 따라, 그가 자신을 위해 준비하는 이 땅의 운명과 영의 나라의 운명이 정해진다. 나는 절대로 전혀 인간의 의지를 강제로 꺾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단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 나의 피조물이 스스로 그들의 의지를 바꾸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한 수단은 또한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큰 환란이다. 그러나 이런 환란은 사람들 자신의 잘못된 의지로 인해 야기된 환란이다. 내가 그들이 자유로운 피조물로써 언젠가 의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해, 온전해질 가능성을 막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 자신을 위해 그들을 풀어줘야만 한다.

나의 힘에 의해 생성된 존재는 신적인 존재이고, 비록 이런 존재가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을 지라도, 존재는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머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사람에게서 의지의 자유를 빼앗으면, 피조물은 영원히 자유롭지 못한 채로 머물고, 단지 자유의지로 도달할 수 있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고, 나는 나에 의해 생성된 피조물로부터 그들의 사명에 대한 모든 깨달음을 빼앗고, 피조물을 나의 뜻대로 인도해야만 한다. 그러면 피조물은 아직 신성과 거리가 먼 심판을 받은 존재이다.

그렇지라도 존재가 원래의 상태에 가까워지게 하려면, 존재에게 의지의 자유를 줘야만 하고, 존재는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의지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내가 존재에게 인간으로 살 수 있게 했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었다. 그의 이 땅의 시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내가 그의 자유의지에 절대로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잘못 사용한 의지를 오랫동안 다시 묶어야만 하고, 존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의 과정을 다시 가고, 새롭게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치르는 은혜를 다시 얻는다면, 존재에게 다시 자유를 줄 수 있다.

이런 일은 영원히 어길 수 없는 법칙이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나의 법칙에 모순되고, 존재가 가진 신적인 요소를 전적으로 잃게 되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에 의해 생성된 존재는 항상 영원히 나의 일부분으로 머물기 때문이다. 존재의 최종적인 목표는 원래의 상태에 도달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자유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나에게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곳에 나의 의지를 통해 질서가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자유의지가 가장 노골적으로 사랑 없는 일을 할지에 상관없이, 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영원으로부터 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나의 의지가 성장하거나, 퇴보하는 일을 중단시킨다. 그래야만 완전히 잘못된 의지를 묶는 일을 통해 다시 질서 상태가 확립되어, 자유롭지 못한 영적인 존재의 구원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왜냐면 나는 나에 의해 생성되었고, 자유의지로 나를 떠난 영적인 존재가 그의 자유를 되찾고, 원래의 상태에 도달하고, 언젠가 축복 되도록, 존재를 돌보는 일을 중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는 죽은자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해야 한다. 너희는 생명이 없는 자들을 깊은 곳으로 부터 끌어올려서 그들에게 생명력 있게 해줘야 한다. 너희는 생명력이 있게 만드는 내 능력으로 심장에 감동을 줘야 한다. 나 자신이 위로부터 너희에게 주는 능력은 내 말이다. 이로써 너희가 중계자로서 내 말을 전하게 하고, 내 능력이 또한 아직 영이 죽은 자들에게 내 능력이 임하게 한다. 너희는 어떠한 귀한 것을,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선물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능력으로 죽은 자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내 말을 받은 것처럼, 너희는 사랑으로 내 말을 전해야만 한다. 도우려는 의지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자신을 생명으로 깨어나게 한 것을 전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항상 성공할 것이다. 너희는 이 땅과 영의 나라에서 축복되게 역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큰 어두움이 모든 곳에 있다. 이 어두움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으로 죽은 혼들이 거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은 빛을 의미한다. 단지 사랑의 열기를 발산하는, 즉 굳어진 혼을 살아나게 하는 빛 줄기를 받은 혼만이 생명으로 깨어날 수 있다. 사랑의 빛이 이런 죽은 혼에게 임해야만 한다. 그러면 혼은 확실하게 생명으로 깨어난다. 만약에 너희가 그들을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내 말씀을 그들에게 사랑으로 전하면서, 사랑과 빛의 비추임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

말씀은 내 사랑과 은혜를 통해 너희에게 쉬지 않고 흘러가는, 치료할 능력이 있는 생명수이다. 이를 통해 너희의 혼이 건강하게 되고, 혼은 올바른 생명을 얻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혼의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많은 무덤에서 머물고 있는 혼들이 비록 그들의 생각이 아직 이 땅에서 거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짓누르는 어두움 속에 있는 혼들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다. 너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너희는 그들이 죽음의 밤으로부터 생명의 빛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왜냐면 너희는 효과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들을 단지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나 자신의 능력과 빛의 비추임이 단지 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절대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지 않을 내 말을 가지고 있다.

나의 말이 단지 사람들의 귀에 들어 가는 동안에는, 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왜냐면 혼만이 위로부터 오는 말씀의 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자신이 내 사랑의 능력으로 혼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하는 문을 단지 사랑이 열어준다. 너희가 이러한 죽은 혼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하면, 너희가 모든 사랑으로 그들에게 내 말씀을 전하면, 너희 사랑이 나에게 문을 연다. 너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는지 생각하라.

너희는 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생명으로 깨어나게 할 수 있다. 단지 사랑이 너희로 하여금 내 말을 전파하게 하면, 나는 너희의 노력을 축복하기 원한다. 어느 곳이든지 빛을 어두움 가운데 전파하라, 영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저 세상의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너희의 죽은 이웃들을 생각하라. 그들이 생명으로 깨어나기 원하면, 그들에게 사랑으로 내 말을 전하라. 내 말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혼들은 생명으로, 빛으로 깨어날 것이다. 혼은 더 이상 절대로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불쌍한 혼을 위한 기도.

B.D. No. 4305

1948년 5월 19일

어두움 속에 있는 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 그들의 힘은 사라졌고, 그들의 운명을 쉽게 해결 사랑의 힘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부족한 동안에는 그들은 가장 큰 절망적인 상태에 있게 된다. 그들은 방황하고, 그들의 의지는 완전히 감각이 없다. 기도를 통해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동안에는 그들은 말할 수 없게 오랫동안 고통이 충만한 상태에 머문다. 너희 이 땅의 사람들이 불쌍한 혼들을 사랑으로 기억하고, 그들의 운명을 쉽게 해주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면 단지 사랑이 그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가치가 없고, 단지 효과가 없는 형식이다. 그들에게 어떤 힘이 공급될지는 단지 사랑의 정도가 결정적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불쌍한 혼들에게 주목해야만 하고, 그들이 한번 사랑의 힘을 느끼면, 간절하게 힘을 주기를 너희에게 구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들이 아직 깊은 곳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그들이 저세상에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혼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일을 의미하는 그들의 지식을 통해 스스로 힘을 키울 수 없는 동안에는, 너희의 도움에 의존한다.

연민으로 그들에게 향하는 모든 선한 생각은 혼들을 수월하게 해주는 역사를 한다. 혼들은 이를 느끼고 항상 너희 가까이에 머문다. 혼들은 너희가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를 받기 위해, 너희가 그들을 생각하게 하면서 너희에게 부탁한다. 그들을 잊지 말라. 너희의 생각을 그들에게서 돌이지 말라. 그들을 위해 사랑이 충만한 기도를 드리라. 이로써 그들 안에 고난 가운데 있는 혼들을 향한 사랑이 깨어나게 하고, 그들이 이제 이런 혼들에게 사랑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불행으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수 있게 하라.

그들의 환경은 빛이 없고 황량한 그들의 영의 상태에 합당하다. 이런 혼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러지면, 약간의 빛의 상태가 된다. 이 가운데 혼은 끊임없는 어두움 후에 혼을 아주 행복하게 하는 희미한 깨달음을 얻는다.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랑의 정도가 어두움을 비추는 빛의 밝기를 정하고, 혼은 빛으로 향하고, 항상 또 다시 새로운 광선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라. 그들을 곤경 가운데 홀로 두지 말라. 너희가 그들에게 아직 줄 수 있는 도움을 그들에게 주라. 생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권고하여, 그들이 사랑으로 그들의 주변 환경을 생각하게 하고, 그들이 또한 너희에게서 받은 것을 다시 전하면서, 빛의 축복에 도달하도록 이웃들을 돕게 하라.

너희는 너희의 기도를 통해 말할 수 없게 많은 고난을 줄여줄 수 있고, 이런 혼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다. 왜냐면 너희의 기도를 통한 힘의 공급이 그들의 의지에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지는 이제 올바른 방식으로 다시 활동하게 된다. 혼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힘을 사랑으로 다른 고난당하는 혼들을 위해 일하기 위해 사용한다. 혼은 이제 자신이 높이 성장하는 일을 시작하고, 혼은 이런 성장에 대해 너희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아멘

구속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왜냐면 빛의 존재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그들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노력은 사람들의 생각에 모든 방식으로 역사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제공되면, 그들이 빛의 나라로부터 온 존재들로부터 말씀에 자신을 열게 하는 지원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저세상에서도 빛의 존재들이 항상 자주 깊은 곳으로 내려가 어두움 가운데 빛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구속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있다. 항상 또 다시 불씨가 밝혀지고 그들에게 빛의 근원을 향하는 길을 보여주면, 존재가 이 빛을 영접할지 또는 거부할지는 존재가 실제 원하는 지에 항상 또 다시 달려있다.

그들이 이 길을 따르면, 아주 빠르게 그들로부터 어두움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취질 것이다. 그러나 이 빛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영원한 기간 동안 깊은 어두움이 그들을 감쌀 것이고 그들은 땅의 창조물 안으로 새롭게 파문을 받을 것이다.

이런 모든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직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진실로 빛이 충만한 세계에 의해 행해질 것이다.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축복되게 역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구속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 모든 곳에서 육신을 입을 빛의 전달자들은 진실로 이 땅에서 아직 사람들에게 빛을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쉬운 시작이 아니다. 왜냐면 세상 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항상 단지 적은 수의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반면에 세상은 빛 보다는 어두움을 선택하기를 더 좋아하는 그러므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셀 수 없이 많은 추종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혼들을 위해 싸울 것이다. 왜냐면 위로부터 빛의 나라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이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은 나라를 향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중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의 나라의 빛의 세계는 어두워진 인류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한 노력을 쉬지 않고 한다. 이로써 항상 또 다시 영의 나라와 이 땅과 연결이 이뤄질 것이다.

사람들은 빛의 존재들은 그들이 이웃들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것으로 깨닫는 일을 자원해 실행할 것이다. 사람들은 빛의 존재의 재촉을 따를 것이다. 이런 역사를 주님의 포도원에서 너희가 열심히 행하는 일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통해 영적인 대화와 설명과 지속적인 하나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일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거론해야만 하고 열심이 증거해야 하고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면 모든 곳의 좋은 밭 위에 씨앗을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에게 발걸음을 옮기고 그에게 얼굴을 돌리는 즉 그를 통해 구속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붙잡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

이 땅에서 또는 저세상에서 긴밀하게 그를 부르는 부름은 들리게 될 것이고 혼이 갈망하는 것이 혼에게 주어질 것이다. 긴밀한 부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혼의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영원 가운데 혼의 운명은 보장받는다. 그러므로 모든 구속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다.

모든 구속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참여한다. 그는 혼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이런 자유를 가지고 영원한 축복에 도달하게 자신의 구속사역을 혼들에게 완성시킬 수 있기 위해 단지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필요로 한다.

아멘

종말의 때의 은혜. 종말 전의 죽음. 저 세상.

B.D. No. 3135

1944년 5월 28일

현 재 자신의 불의를 깨닫고 불의를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강박함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이웃을 공홀히 여기지 않고 이로써 자신의 사랑없음으로 자신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공홀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가장 무거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때가 사람들의 타락을 증거할 것이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파괴시킬 생각과 가장 생각해낼 수 없는 수단들을 생각해내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런 수단을 사용해 그들의 계획을 실행시키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을 압제하는 일은 증가할 것이고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동자는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동자에게 동조하고 그의 계획을 지원해주는 모든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은 공의롭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바라본다. 심장의 모든 움직임이 은혜의 정도를 결정한다. 종말이 다가오면, 이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고 보장이 된다. 그러나 종말은 피할 수 없게 다가오고 사람들의 행동이 종말이 빠르게 다가오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인내를 더 오래 행하고 사람들에게 자주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아직 자주 줄지라도 인류를 더 낮게 만들 수 없게 된 한 시대가 끝이 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마치게 한다.

이 시대는 인류의 성장에 아주 특별하게 은혜가 충만한 시대이고 이 시대가 너희가 구원을 받기에 전적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의 선물로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는 자기 자신의 혼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이런 특별한 은혜의 선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오랫동안 거하는 일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단지 육체만 성공하고 그러나 소멸되지 않는 혼은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혼은 계속되는 모든 이 땅의 기회를 빼앗긴다.

그러나 너희가 마지막 심판 전인 이 땅의 종말 전에 육신의 생명을 잃게 되어 저 세상에서 영접을 받고 저 세상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직 저 세상에서 계속 성장하는 일이 보장된다. 이 땅에서 자신의 결정을 하지 않은 혼들에게 종말 전의 죽음은 특별한 은혜이다. 그러면 그는 저 세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얻고 이로써 아직 중단된 성장을 지속할 수 있거나 또는 그의 저항이 아주 크지 않다면, 성장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 그가 자신을 돕기 원하는 혼들에게 귀를 기울이

지 않으면, 그 자신이 계속하여 퇴보할 수 있고 다시 굳은 물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다시 인간으로 육신을 입기까지 긴 이 땅의 과정을 가야만 한다.

하나님은 옛 땅이 사라지게 하기 전에 많은 은혜를 준비해 두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 의지에 강요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여는 지에 따라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혼을 위한 유익을 얻는다. 그들이 모든 은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을 닫는다면, 그들은 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공허하고 무기력하게 머물게 될 수 있다. 또는 그들은 그들의 의지를 통해 모든 은혜의 선물이 자신에게 역사하도록 허용하여 능력을 아주 많이 받음으로 믿을 수 없게 빠르게 자신을 높이 성장시킬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충만한 하나님이고 그러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지에 따라 사람들을 돕기 때문이다.

아멘